

## 1. 하루에 수십 번 부르면서도 정작 모르는 그 이름 "예수"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예수'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가 막힐 때 무심코 내뱉는 호칭일 수도 있고, 삶이 버거워 다급하게 부르는 탄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너무 익숙하게 부르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이름이 가진 놀라운 의미와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짧은 이 이름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하고도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 도덕성과 선함으로는 결코 나를 붙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장 겸손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특히 이 이름의 참된 가치는 우리가 실패와 무너짐의 자리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죄를 짓거나 넘어질 때 종종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지? 나는 자격이 없어."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심판자가 되려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 다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며 구원의 필요성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실패를 핑계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더욱 깊이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이 드러난 그 자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채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영혼이 메마른 때가 있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열정은 식어 버리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속아 신앙이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감정의 뜨거움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을 붙드는 신뢰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려는 모든 헛된 시도를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주님의 완전한 구원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 실패와 낙심으로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이 예수의 이름이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순간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이 설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이면서 동시에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2천 년 전 십자가에서 선포된 구원의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혹은 내일 아침 눈을 뜨며 조용히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이 짧은 믿음의 고백이 당신의 하루를 붙들고,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생명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자격 없음보다 크시고, 내 모든 실패보다 크시며, 내 모든 연약함보다 크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당신의 가장 완전한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당신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오늘 하루(혹은 이번 한 주간)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로 어떤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불렀나요? (예: 습관적인 기도의 끝자리, 다급한 탄식, 감사의 순간 등)

→ \_\_\_\_\_

- 우리는 왜 자꾸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 \_\_\_\_\_

- 글에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 '자학(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나 '합리화(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라는 두 가지 극단에 빠지기 쉽다고 말합니다. 나는 주로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편인가요? 그런 영적 무력감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지금 내 삶의 어떤 영역에 가장 필요합니까?

→ \_\_\_\_\_

- 이번 한 주간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라는 짧은 행복의 고백을 실제로 실천해 보기로 결단합니다. 서로가 이 고백을 잊지 않도록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 \_\_\_\_\_

### 3.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예수'라는 이름을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불러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단 1%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죄와 실패 앞에서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합리화했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나의 실패에서 주님의 완성으로 돌립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이 짧은 고백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생명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격 없음보다 훨씬 더 크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